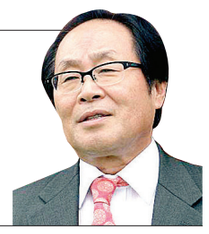
현불 논단

코로나 수행과 戒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4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방 기대한 사람들 다시 움츠려

팬데믹 상황서 '戒定慧' 떠올리며
코로나를 극복 아닌 수행 여기자

삼학 토대 계, 바른 생활의 규범
방역수칙도 규제 아닌 자유의 길
자신만의 계로 여기면 수행 가능

이를 어쩌랴. 코로나19의 불길이 가까스로 잡히는가 하더니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부풀어 있던 많은 사람이 다시 움츠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필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 언뜻 떠오른다. 이것은 아마도 코로나 극복의 과제는 단순한 의학적인 방법이나 통제적 수단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의 변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출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엉뚱하다고 하겠지만 코로나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것은 필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60세가 넘어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나의 전공인 윤리학과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붓다의 정치철학을 탐구하는 저서를 냈으면 하는 서원을 했다. 그러나 쓰다 말다 하면서 7~8년을 민둥민둥 보냈다. 그런 와중에 소화기 장애가 생겨 입원도 하고 술도 삼가면서 근신생활을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폐된 기간에 붓다의 정치철학에 관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참으로 고마운 병이었다.

확장되고 있는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계정혜 삼학을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 삶의 양식에 이로운 효소로 작용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 때문이다. 필자는 삼학 중에서 계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계는 구속적이고 방편적인 수단 가치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계의 중요성을 점점 체감하게 된다. 계는 삼학의 토대로서 계의 실천을 통해 정과 혜로 나가는 큰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계율이 붓다의 가르침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붓다학'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을 자는 모르지만. 계의 기본은 불제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잘 닦아 잘못된 것을 막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생활상의 규범이다. 계는 바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불교 공동체의 핵심이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질곡을 살면서 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금 세계 각국의 방역 당국은 코로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통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통제 방안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로 축구대회에서 마스크 없이 광란의 응원을 하는 장면을 TV에서 자주 보게 된다. 코로나의 통제 틀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의 욕망이 처처에 난무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를 생각하는 것은 계가 단순한 구속적 규범이 아니라, 구속적 규범을 넘어 큰 대자유의 길로 보기 때문이다.

색·수·상·행·식이 엉겨진 오취온(五取蘊)인 인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삶의 바다를 항해한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란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통제적인 항로에서 벗어나 저기 보이는 그럴듯한 섬에 정박하고 싶은 충동은 항상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해는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 삶의 일상적인 고해의 항해일 뿐이다. 코로나 시절에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하나의 계로 받아들이고, 또한 자신만의 규범인 계를 만들어 실천하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 수행일 것이다. 코로나 수행을 통해 뜻깊고 멋진 삶을 사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 얼마나 환희로운가.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CPE교육은 '발효 수행'

지난 7월 4일 전국비구니회 CPE센터는 8명의 첫 교육수료생을 배출했다. 16주간의 장거리 마라톤 같은 교육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15주 동안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마지막 주인 16주에는 대면으로 CPE센터 강의실에 모여앉아 평가하며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시작할 때는 자신들의 약점에 민감하였는데 어느새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의식을 확장해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다. 자신을 '작은 돌'로 비유했던 한 학생은 보잘 것 없는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의 중심을 잡아주고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해주는 더 큰 돌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교육생 모두는 마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통해 구법의 여정을 하듯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거울삼아 자신을 깨닫고 변화해 갈 수 있었다.

수료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수료 후에는 케이크까지 마련해서 사중 스님들과 함께 축하파티를 개최했다. 여운이 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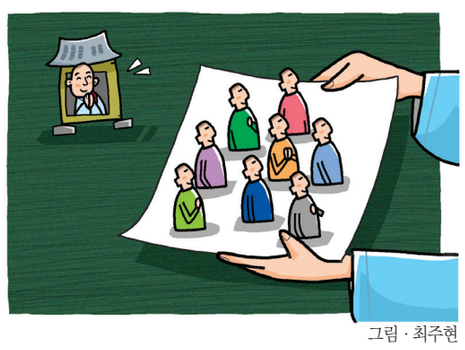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는 수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교육이 끝나고 한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육을 마치면서 받게 되는 수료증이 사회에 어떻게 쓰이고 병원 포교에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처음 '깨침 수행'을 통해 한 소식하면 마치 초인처럼 바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존재가 되는 줄 알았던 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화선이 '깨침 수행'이라면 CPE교육은 '발효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E교육은 타인을 돌보는 데 걸림돌인 자신의 약점들을 교정하여 객관적인 돌봄의 능력을 겸비한 깊이 있는 돌봄가로서 거듭나는 수행인 거죠."석연치 않아 하는 기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나는 수료증이 사회에 쓰이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결성된 '자비실천 병원포교단'을 소개했다. 병원포교를 '자비실천수행'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수행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모인 스님들의 승가결사체를 기자도 알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병원포교의 원력을 세운 수행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스님들의 영적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CPE교육을 주도해갈 지도자를 양성하여 불교 CPE수퍼바이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기자는 "스님 굉장히 기대가 되고 교계의 기자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좋은 기사로써 함께할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고 하며 진심어린 응원을 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說

남방불교 승단에 온정을

탁발의 전통을 지켜온 남방불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다. 사찰 운영의 근본적인 토대인 탁발공양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수행을 지속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방불교 전통에 따르면 스님들은 공양물이 아닌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지 못하며 공양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탁발공양이 급감하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사찰 운영 및 사찰 차원의 사회적 회향인 복지사업에도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이에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위기에 처한 남방불교 스님들을 위한 긴급 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국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남방불교 수행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사찰을 위한 1차 긴급지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4일 캠페인을 시작한 지 꼭 한달 만에, 한국 사찰과 불자들이 모연한 후원금으로 사찰 4곳에 쌀과 라면, 생필품 등을 지원한 것이다.

지원금은 현지 사찰의 사정에 맞게 분배해 로터스월드 현지 지부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됐고, 각 지부는 지원금으로 쌀과 라면, 설탕과 식용유, 비누 등을 현지 구매해 사찰에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3개국 4개 사찰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찰들이 산적해 있다. 캠페인을 통한 모연 동참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한국불교계의 자비온정이 위기에 처한 남방불교 승단의 더 많은 사찰로 가 닿길 발원한다.

'복날' 생명존중 채식문화로

7월 11일 초복을 지나 7월 21일 중복이 왔다. 삼계탕 등 보양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오랜 문화이자 세시풍속이다. 대부분 닭백숙이나 삼계탕을 먹지만 선조들은 보신탕을 즐겨먹었다. 복날의 이름 자체도 사람인(人) 변에 개견(犬)을 붙여 쓴 복(伏)이다. 최근에는 삼계탕 대신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환경연대가 말복인 8월 10일까지 삼계탕과 같은 육식 보양식 대신 채소로 만든 채계장 등을 먹자는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만연된 공장형 축산시스템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가축을 생명이 아니라 공장의 제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축산업은 환경파괴와 자원 소비를 가속화한다. 광우병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등 현대사회에 유행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배경도 공장식 축산시스템에 있다.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는 물론 대량식육 소비문화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복날 만큼은 채식문화로 불자들 식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은 무엇보다도 오계의 으뜸인 불살생계를 이해하고 삶의 지남(指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에게 뭇생명을 해칠 권한을 받은 타종교의 교리보다 불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수승함을 알기 때문이다. 불살생계를 평소에는 지키지 못하지만, 복날이라고 하여 애써 파할 이유가 있을까.

채식을 활용한 복날 식문화를 불교계가 이끈다면 이는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기회이자, 불교 가르침을 일반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복날 채식 식단을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